

油價 안정을 위한 市場管理방안

油價구조의 붕괴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종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국제적인 공동인식 아래 석유업계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관리를 위한 갖가지 대안이 무수히 제시되고 있다. 그것들을 일별해 보면 OPEC와 非OPEC 간의 석유생산의 통합, IEA 국들의 석유관세 부과, 선진 소비국들의 최저가격 변경, 국제석유 메이커들의 상류부문 재통합, OPEC 산유국들과 자산교환 및 OPEC의 非OPEC 석유 매장량 취득 방안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현재 전 미국무성 에너지 정책담당 차관보였던 Edward L. Morse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原油가격이 배럴당 8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정치적 조치가 제안되어 왔다. 그들중의 어느것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황에 알맞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OPEC와 非OPEC의 통합,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통합, 산유국 정부와 석유 메이저간의 통합, 소비국간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같은 통합화된 정치적 개입이 실패한 경우 油價는 적어도 향후 5년동안은 낮은 수준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더우기 충분한 원유가 공급되고 석유회사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으로 재고비축을 꺼릴 경우, 소비국들은 겨울철 성수기의 수요증가와 비수기의 수요감퇴로 인한 유가의 불안정을 매년 겪게 될 것이다.

최근 몇 개월동안 노련한 석유전문가들은 우리들에게 국제석유시장이 일반상품 시장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일년여 동안 OPEC와 非OPEC 간,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실제있는 대화를 촉구 해오고 있으며 서방각국들은 1981년 이후에 발생한 석유공급과잉 현상에 도취되어 안정감에 휩싸이지 말것

을 경고해 왔다.

새로운 체제의 필요

국제 석유경제와 그에 따른 중대한 정치적 개입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첫단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油價체제 붕괴로 인한 최악의 결과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油價구조 붕괴가 방지된다면 石油을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체제는 산유국들과 석유수입국간, 소비국 상호간, 민간회사와 국영석유 회사간, 석유회사와 정부간의 통합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석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간단한 대응조치는 정치적 결단으로 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石油 및 석유제품의 美國내 수입에 대해 즉각적인 장벽을 쌓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상원에서 그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美國이 예산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차적으로 각광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관세 장벽을 쌓게 될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국내 석유생산 조장을 위한 사실상의 최저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국내의 석유생산자들의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석유시장이 공급과잉 사태로 침체되면 석유는 美國내 시장에 관세장벽 가격을 뺀가격으로 침투될 것이고 이에따라 국제原油 가격은 더욱 더 침체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시장이 팽박해지면 산유국에서 만족스럽게 작용하고 침체되면 美國정부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몇몇 OPEC 산유국들을 지원하는 데서 부수되는 권익이 상쇄됨은 물론, 현저히 낮은 油價덕분으로 英國, 노르웨이, 캐나다등이 받게되는 이익 역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실제적으로 IEA의 선진공업국들은 집단적으로 석유류 절약정책을 채택 추진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또 石油 및 기타 재래식 연료의 미래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은행제도 무역제도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정책을 보완해 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IEA 최저 가격

IEA는 에너지 위기 발생시 석유류 분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석유자원의 개발촉진등의 존립목표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IEA가 회원국내의 토착원유 생산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최저가격(당시 배럴당 7달러)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는 이 수준을 15달러 수준으로 하려는 데 정치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확정되면 회원국들내의 토착석유 생산을 조장하고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이익의 방어는 물론 각국간에 일고 있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무역마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石油関稅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적어도 석유관련 부채해결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도 적지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파급효과로 IEA 국가들과 그 밖의 나라 특히 OPEC 국가 및 개발도상 채무국 그룹과의 관계를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石油関稅부과는 문제해결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石油関稅의 문제점들

IEA가 관세장벽을 가지고 油價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OPEC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한계 공급자로서의 역할만을 하게되어 개별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공업국들과 그들 나름대로 편법거래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지난 4년동안 OPEC 산유국들이 단결에 실패했다는 점, 또 심각한 재정난으로 산유량을 높여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OPEC가 분열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소비국이나 산유국이 별도로 착수하게 되는 시장정상화 방안이 최대의 취약점은 국제 석유시장의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노선을 지향하자면 주요 산유국들의 강력한 단결력이 필요하며 상류부문 생산활동과 하류부문의 정제 및 마케팅 활동이 통합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태로 보아 그 어느것도 강력하지 못해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산유국들의 단결력

현재와 같이 수요가 침체된 국제석유시장은 산유국들이 일치 단결하여 산유량의 감축, 시장에의 공급억제등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原油생산과 정제를 통합함으로써 국제 석유 메이저들은 그들의 이익을 원유생산 활동과 정제활동으로부터 선택 확보할 수 있다.


1982년 이래 전세계적으로 산유량을 조정한다는 것이 OPEC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음이 증명되었다. OPEC는 스스로 세계시장에 수급을 균형시킬 수가 결코 없었으며, 주요 非OPEC산유국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 들이는데 한계를 느꼈다.

석유 메이저들이 엄청난 부채에 허덕일 경우 가격구조가 붕괴하면 메이저들과 사우디등 주요산유국 사이에 거래조건 기반이 형성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떨어지면 석유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채고판매와 부채변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석유수출국들은 메이저들이 非OPEC산유국에 보유하고 있는 석유 매장량에 대해 매입오퍼를 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산유국들은 국내생산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획득한 매장량은 생산을 중

단할 것이다. 아니면 국내에서의 석유생산을 중단하고 관세장벽내에서 새로 취득한 매장량부터 생산할 수도 있다.

上流部門의 재통합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석유수출국과 석유생산회사 사이에 자산교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이저 즉 산유회사들이 중동의 저가원유에 지분을 확보하고 산유국들은 그 댓가로 하류부문의 정제시설이나 마케팅 시설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합리화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원유생산에 있어서 200만-400만 배럴정도 관리할 수 있으면 생산통제를 통하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져 관계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상당한 정도 산유국들과 정유회사의 공동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OPEC 산유국중 많은 나라가 하류부문에 진출, 사우디와 같이 자국에 수출용 정유공장을 건설한 나라도 있고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같이 유럽과 美國등의 소비지역에 하류부문 시설을 매입한 나라도 있다.  (PIW)

